

##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 신체화된 마음을 중심으로 -

김경호

**주제분류** 한국철학, 유가철학, 감성학

**주요어** 슬픔, 신체화된 슬픔, 도덕적 슬픔, 슬픔의 상징화, 슬픔의 파도타기

**요약문**

이 글은 슬픔의 메커니즘과 슬픔의 이해 방식을 알아보고,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개념화하여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나갈 것인가를 모색한다. 필자는 슬픔이라고 하는 추상적 감정은 신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경험화되고 개념화되어 일상적으로 나타나지만,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이 글은 먼저,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안하고 있는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개념을 통해 ‘슬픔의 신체성’을 논의하고, 다마지오의 인지생물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슬픔(감정)의 발현 메커니즘’을 조망한다. 아울러 언어철학과 인지언어학 분야의 논의를 근거로 슬픔의 개념화 방식과 이해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또한 신체를 기반으로 한 슬픔의 양상을 ‘주체-자아’ 은유와 ‘행위-위치’ 은유를 적용하여 상실과 좌절의 두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자연적 감정인 슬픔을 ‘도덕적 슬픔’으로 포착하고 있는 맹자의 시도를 ‘슬픔의 도덕화’란 관점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적 슬픔을 넘어서려는 적극적 시도를 ‘슬픔의 상징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슬픔의 파도타기’라는 맥락에서 논의한다. 왜곡된 수동적 슬픔으로부터 균형 잡힌 슬픔으로 전환시키려는 실존적 분투는 타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타자로서의 자신과도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량이자 치유적 힘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A00006)

## 1. 들어가며

우리는 슬픔을 비롯한 기쁨, 분노, 사랑 등과 같은 개별 감정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그러한 감정과 느낌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누구나 경험하고, 또 누구나 자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기에 슬픔, 기쁨, 분노, 사랑 등과 같은 감정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감정의 수용과 인식의 기저에는 슬픔과 같은 감정이 비록 발현 양상의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적(본능적)인 것’이고,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라는 경험적 사실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삶 속에서 감정의 발생 원인과 표현 양상, 그리고 감정적 반응 양식이나 정서적 태도는 삶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미묘하다. 감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신체 표현으로 드러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넘어 다층의 집단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일상적이고 개인적 것으로 간주되었던 감정의 층위는 ‘사적인 차원’에서 내밀해짐과 동시에 ‘공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감성의 시대라는 표현은 인간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행위의 영역에서 이성만이 아닌 또 다른 인간의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성찰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감성의 시대’ 혹은 ‘감성’에 대한 호명(은 이성과 이항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느낌이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감정 영역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유에는 이성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성에 기인하는 다양한 감정과 무의식적 기제가 함께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는 것이다. 즉 삶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부분은 ‘이성’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부분을

1) 김경호, 「유학적 감성세계와 공감」, 『감성연구』1,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0. 86-88쪽 참조.

‘사이영역’이라고 지칭할 때, ‘사이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능력으로서의 감정의 역할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감성을 ‘특정한 느낌과 정서적 표현이 결합된 삶의 태도와 반응 방식’이라 이해한다. 감성을 단순히 사물인식의 기능이나 지각의 수용양상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파생되는 삶의 태도와 반응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서적 차원과 느낌을 포함하는 감정 영역에 대한 재인식은 인간의 의식적 판단과 행위가 ‘이성에 따른 합리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반이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성에 의해 간과되었던 감정 영역의 회복을 통해서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감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이란 이처럼 신체성에 기반을 둔 개별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삶의 태도로 표출되는 형태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란 감성적 일면과, 감성과는 다르면서도 공동의 기반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 ‘이성이라는 이름의 사유방식’이 중층적으로 직조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한 논의는 ‘감정’의 표출방식이 ‘사적인 것’이고 또한 ‘충동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탐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을 추구하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탐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최근의 감정에 대한 탐구<sup>3)</sup>는 이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도덕적 판단의 메커니즘이나 행위의 양상, 개인적 욕망의 충위와 사회적 갈등 양상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확장된 이해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언어적 사용이 갖는 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한 현대 영미철학자들의 논의와 의미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인지언어학과 언어철학 분야에서는 슬픔과 기쁨, 분노와 사랑과 같은 감정의 문제를 학술적 영역에 끌어들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정과 사유에 대한 경험

과학적 지평을 넓히고 있는 인지생물학과 인지신경학 분야 등도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탐구는 개별적인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 통합학문의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성’을 근거로 ‘경험적 세계’를 해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감정과 이성의 상호존재적인 관계적 위상 정립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학을 모색하려는 감성연구와 연관된다. 감성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신체적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보다 나은 삶의 기획과 실천을 위한 ‘인간학적 탐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감성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슬픔’의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sup>4)</sup> 필자가 인간의 경험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느낌 가운데 슬픔의 감정과 양상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슬픔의 문제는 고통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고, 둘째 슬픔의 양상은 상실과 좌절에 처한 인간 존재의 심연을 가지적으로 드러내주며, 셋째 슬픔은 슬픔의 주체로 하여금 상징화 과정을 통해 자기 전이의 비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관점은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에 함축되어 있다.

필자는 ‘슬픔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대신에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으로 이 글을 시작하였다. 이 물음에는 슬픔이 비록 추상적 감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의 신체성에 근거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란 특정한 자극에 대하여 ‘신체성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자연적 반응의 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슬픔은 개별 감정의 한 양태이자 정서적 범주에 속한 사적인 것이지만, 슬픔의 충위는 타자와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드러나고 증폭되거나 소멸하는 한다는 점에서 ‘관계적’이다. 이 관계적 과정에서 경험화된 슬픔은 추상화되고 개념화된다. 추상화되고 개념화된 ‘슬픔’은 인간의 경험적 영역을 재구성하면서 확장되고, 또한 재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 박정순, 「감정의 윤리학적 시찰」,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101-102쪽.

3) Michael Lewis(ed), Handbook of Emotion-thir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8) 참조.

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은 2008년부터 ‘세계적 소통 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이라는 장기 의제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1년차(2011.9-2012.8)에서는 ‘슬픔’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슬픔의 관계적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슬픔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슬픔의 수동성을 넘어서기 위한 의식적 분투는 인간이 직면한 한계적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역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슬픔의 메커니즘과 슬픔의 이해 방식을 알아보고,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개념화하여 능동적인 힘으로 바꾸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슬픔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정대현의 글에서 확인된다. 정대현은 슬픔을 ‘타자와 연결되는 자기 실존의 범주’로 설정하여 추상화된 슬픔을 분석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논의는 슬픔과 관련된 철학사적 논점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슬픔의 경험화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추상화된 슬픔’의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슬픔의 경험적 기반으로서 ‘신체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슬픔의 메커니즘과 개념화 양상을 해명하기 위해 최근의 인지언어학·언어철학·인지생물학의 성과들, 특히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안하고 있는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을 핵심으로 하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 관점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슬픔의 신체성’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시작하여 슬픔의 발현 방식과 그 이해 방식을 다룬다. ‘감정 발현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치밀한 논증이 필요한 논의이지만 이 글에서는 다마지오의 인지생물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언어철학과 인지언어학 분야의 논의를 근거로 슬픔의 개념화 방식과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이어서 신체를 기반으로 한 슬픔의 양상을 ‘주체-자아’ 은유와 ‘행위-위치’ 은유를 적용하여 상실과 좌절의 두 층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자연적 감정인 슬픔을 ‘도덕적 슬픔’으로 포착하고 있는 맹자의 시도를 감정입과 도덕적 상상력을 적용하여 ‘슬픔의 도덕화’란 관

5) 정대현, 「슬픔: 또 하나의 실존 범주」, 『철학』 100집, 한국철학회, 2009. 63-68쪽.

점에서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고통스러운 현재적 슬픔을 넘어서려는 적극적 시도를 ‘슬픔의 상징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슬픔의 파도타기’라는 맥락에서 논의한다.

슬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면서도 너무도 자명한 감정을 체계적이고 논증적인 글로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의 이 논문은 시론적이며, 일견 무리한 점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이러한 문제는 슬픔을 비롯한 개별 정서나 느낌을 연구하는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슬픔의 감성철학적 층위를 해명하기 위해 분석의 틀로 차용하고 있는 인지언어학적 방법론과 신체성에 근거한 체험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지생물학적 관점 또한 아직 하나의 ‘가설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가설적 단계’에 있는 방법론을 슬픔의 감성적 층위를 탐구하는데 차용한 것은 이와 같은 논의들이 경험적으로 보다 유용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 2. 유동하는 신체화된 슬픔

스쿠온크는 무척 무뚝뚝한 동물이다. 일반적으로 석양 무렵에 잘 나타난다. 얼룩덜룩한 털로 덮인 가죽은 어찌 보면 그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동물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동물이다. 이 동물을 추적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울고 다니므로, 언제나 눈물 자국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되면, 혹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면, 이 동물은 눈물로 변해서 흘러내린다. 스쿠온크를 잡고자 하는 사냥꾼에

6) 익명의 심사자들은 이 글의 성격이 철학 논문인지 문학 논문인지, 철학 논문이라면 서양철학 논문인지, 동양철학 논문인지 그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다. 이러한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필자는 한국철학 전공자이지만 슬픔의 문제를 다루면서 유가철학과 영미현대철학(몸철학·언어철학), 인지언어학, 문학, 인지생물학, 인류학 등 인접학문의 관점을 참조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고, 슬픔의 도덕화(도덕적 슬픔)와 상징화에 대한 가설적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게는 차갑고 달이 뜨는 저녁이 가장 좋은 때이다. 이때는 눈물이 천천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동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스쿠온크의 울음소리는 주로 커다란 관목 아래에서 들려온다.)

스쿠온크는 보르헤스가 편집한 『상상동물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이다. 한 벌목꾼이 이 동물을 잡아서 자루에 담아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눈물과 거품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스쿠온크는 사람들에게 잡히거나 놀라면 ‘흘러내리는 눈물로 된 육체’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털로 덮힌 가족 속에 ‘눈물로 된 육체’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상징성은 이 동물이 계속해서 울고 언제나 눈물자국을 남긴다는 설명이 없더라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동물’일 것임을 상상하게 한다. 스쿠온크의 육체성은 한 낮에는 흘러내렸다가 ‘차갑고 달이 뜨는 저녁’에 다시 견고해진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스쿠온크는 털로 덮힌 가족 속에 ‘남은 상실의 흔적’을 담고 있는 동물이다. 털로 덮힌 가족은 마치 ‘눈물(액체)’을 담고 있는 ‘용기(그릇)’와 같은 것이고, 가족 안에 담겨 있는 ‘흘러내리는 눈물로 된 육체’는 간직해야 할 ‘보물’같은 것이다.<sup>8)</sup> 그러나 ‘그릇(가족)’에 담겨진 ‘보물(육체)’은 점점 휘발되어간다.

이렇듯 스쿠온크는 자신의 육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울음으로 파괴되어 가는 ‘상실의 존재’이다. 또한 차갑게 달이 뜨는 저녁의 시간에는 쉽게 포착되고 포획되어 존재지속을 박탈당하는 ‘좌절의 존재’이다. 그래서 흘러내리고 다시 얼어붙는 육체의 이 동물은 포획당할 때 커다란 관목 아래서 큰 울음을 운다. 오규원은 이 스쿠온크에 대해서 ‘눈물이라는 이름의 피로 살고 있는 존재’이며, ‘슬픔이라는 자신을 잃고 눈물이라는 다른 존재로 파괴되는 비극적 존재’라고 설명한다.<sup>9)</sup>

보르헤스가 전하고 있는 상상의 동물<sup>10)</sup> 스쿠온크는 추상적 감정인 슬

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외 지음, 남진희 옮김, 『상상동물 이야기』, 까치, 1994. 223-224쪽.  
8) 질베르 뒤랑 지음, 진형준 옮김,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2010. 391쪽.  
9) 오규원 지음, 『가슴이 붉은 딱새』, 문학동네, 1996. 52-53쪽.

픔의 신체성과 그 속성을 은유적으로 포착하여 보여주고 있다. 스쿠온크로 은유된 ‘슬픔의 육체’는 ‘울음’이라고 하는 소리와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성을 지니고, 떨어지는 눈물이라는 ‘하향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차갑다’라는 속성과 함께 달이 뜨는 ‘저녁의 시간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유동하는 슬픔’은 ‘포획되는 시점’에서 사라져 버린다.

추상명사로서의 슬픔의 이미지를 상상의 동물에 투사하여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했었던 사람들이 ‘슬픔’을 파악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스쿠온크의 사례는 인간의 의식적 기저에 슬픔을 이해하는 방식이 은유적이고 직관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슬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지반이 신체성에 근거하고 있기에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관적 파악의 가능성’에 대해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인간의 인식능력에 ‘기본층위 범주(basic level categories)’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sup>11)</sup>

상상적 동물의 이미지는 경험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특정 사물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상상적 동물의 육체성은 인간의 신체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가 ‘스쿠온크’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은 바로 그와 같은 신체적 공공성에 기반을 둔다. 그러한 신체적 조건의 공유에서 비롯한 경험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체현주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추상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개

10)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질베르 뒤랑 지음, 진형준 옮김, 문학동네, 2010. 391쪽. 질베르 뒤랑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등장하는 “동물은 자발적인 추상체, 즉 상징적 동화의 대상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그것은 문명화된 의식 속에서 뿐만 아니라 원시적 정신세계 속에서 보편성과 복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은 동물성에 직접 종속되어 있지 않은 특징들에 의하여 다원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11)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60-65쪽. 기본층위 범주는 몸에 근거한 특성을 갖는데, 범주 위계에서 ‘중간에 있는 범주’를 말한다. 이를테면 ‘가구-의자-안락의자’에서 상위범주인 ‘가구’와 하위범주인 ‘안락의자’ 보다 중간층위범주인 ‘의자’가 인지적으로 ‘기본적’이라는 것이다.

념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체 생리적 반응과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2)</sup> 이러한 입장은 ‘인간이라는 신체성의 기반’에서 ‘인간의 경험적 세계’가 구성된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감정은 ‘신체화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슬픔의 감정이 ‘신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서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자는 ‘애(哀)이다. 애는 ‘낙(樂) 혹은 ‘희(喜)와 대비되는 감정 상태를 지시한다. 낙과 희가 ‘웃는 얼굴’ 표정으로 ‘즐겁고 기쁜 상태’를 의미한다면, 애는 ‘짙그린 얼굴’ 표정으로 ‘슬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up>13)</sup> 기쁘고 즐거운 감정 상태는 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체를 활성화시키지만 슬픈 감정 상태는 하향성의 특성이 있어 신체활동을 약화시킨다. 스피노자가 “신체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sup>14)</sup>으로 감정을 정의하는 것도 이와 같이 ‘감정-신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신체’의 상호 의존적 관계성은 고대의 유가철학적 사유에서도 나타난다. 공자는 ‘애이불상(哀而不傷)’<sup>15)</sup>이라고 하여 ‘슬퍼하되 몸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슬픔의 감정은 자칫 신체적·정서적인 ‘조화로운 상태[和]’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애이불비(哀而不悲)’라 하여 ‘슬프기는 하지만 너무 비통해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슬픔의 감정은 보다 극단적인 고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슬픔은 ‘단장(斷腸)’이라고 하는 신체(장기) 훼손과 연결되는 아픔을 보여준다. 새끼 원숭이를 구하려는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질[腸皆寸寸斷] 정도의 참혹한 아픔으로 나타난다.<sup>16)</sup> 슬픔의 감정은 고통스런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 3. 슬픔의 메커니즘과 이해 방식

감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철학·심리학 분야 이외에도 생물학·뇌과학·인지과학·신경생물학 등과 문학 역사학 사회학문화·음악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인지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지언어학과 인지생물학 분야에서는 감정 이해를 위한 경험과학적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체험주의에 기반을 둔 인지언어학과 언어철학 분야는 ‘신체화된 마음’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책임있는 철학(empirically responsible philosophy)”<sup>17)</sup>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슬픔과 같은 감정의 메커니즘에 관한 탐구는 인지생물학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다. 특히 다마지오의 경우에는 인지과학과 인지생물학의 경험과학적 층위에서 ‘감정과 사유, 느낌’의 연관관계를 탐색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아직은 뇌에 전달된 특정한 자극이 어떠한 경로로 특정한 감정을 형성하는지 그 과정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피부와 같은 감각과 눈·코 귀 입과 같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용된 자극은 뇌에 전달되어 특정한 정서를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은 단일한 시스템이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크와 같은 복잡계의 결과로써 산출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마지오의 경우에는 외부 자극에 의해 산출되는 직접적인 반응 정보를 ‘정서(emotion)’라 하고, 정서가 유발하는 부차적인 감정을 ‘느낌(feeling)’이라 부른다. 이렇게 산출된 정보는 즉각적으로 신체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심적 상태로 남아 새

12) 임지룡 지음,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19-20쪽.

13) 이성원, 「고대 중국의 악의 기원과 그 변화 - 사회통합성 이해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4, 2006. 34-42쪽.

14) 스피노자 지음, 강영계 옮김, 『에티카』, <3부 정의3>, 서광사, 2008. 153쪽.

15) 『논어』, 「팔일」.

16) 『세설신어』, 「출면」.

17)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796쪽.

18)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다마지오는 『데카르트의 오류』(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김민 옮김, 중앙문화사, 1999.)를 통해서 감정과 마음, 뇌와 신체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로운 의식을 산출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심적 상태를 ‘마음’이라 부른다. 이럴 경우, 마음은 몸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체화된 마음’으로 표현된다.

다마지오에 따르면, 슬픔이 작동하는 방식은 대상에 의해 촉발되고, 그것은 일정한 발생 메커니즘을 갖는다고 한다. 그가 제시하는 감정 발생의 메커니즘은 매우 체계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되지만, 단순화하면 이렇다. 다섯 살 철이는 감기에 걸렸다. 고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해서 엄마는 철이를 병원에 데려간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던 철이는 병원입구에서 울기 시작한다.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철이의 저항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철이는 이전에 병원에 왔었고,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간호사 누나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는데, 처음 경험한 주사는 너무도 아팠다. 몇 번의 반복되는 주사의 경험은 철이에게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공포를 심어주었다. 10살 철이는 다시 감기에 걸렸다. 이제는 주사를 맞아야 빨리 감기가 낫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사가 두렵지 않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주사바늘의 기억은 잊은 듯 했다. 그런데 엉덩이에 주사를 맞으려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왔다. 두렵지 않다고 의식화했음에도 몸의 기억은 주사바늘의 날카로운 감촉이 온 몸을 타고 흘렀다. 이후 철이는 주사기와 유사한 형태의 ‘바늘’이나 ‘침’과 같은 날카로운 금속을 보게 되면 몸이 경직되면서 아픔의 기억이 즉각적으로 나온다. 철이의 ‘주사기에 대한 기억’은 그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물리적 자극에 의한 신체화된 경험은 개별적인 신체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경험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반사’라는 반응도 개인적인 신체적 경험에 기인하고<sup>19)</sup>, 그것이 누적되는 과정에서는 ‘몸-마음’의 층위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19) 정서적 반응의 과정은 의식적 판단을 수반하지만 그것이 되는 반사적인 경우도 있다. 반사적이라는 것은 ‘자극’의 입력과 그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사의 능력은 유사한 자극에 대한 누적된 ‘신체화된 경험’의 산물이다.

주사기라는 물리적 대상이 엉덩이의 국부적인 피부에 접촉할 때, 피부는 물리적 대상의 자극을 감각한다. 감각은 신체와 그 외부 환경이 접촉하는 표면에서 발생하고 그것은 몸으로 지각된다. 피부에 감각된 내용은 온 몸에 연결된 신경망의 연결고리를 통해 뇌에 전달된다. 감각을 통해 전달된 자극은 뇌의 신경다발에 수용되고 그에 따라 지각과 특정한 감정이 발생한다. 주사 맞기라는 하나의 자극이 우리 뇌의 특정 부위에 전달되어 사상(mapping)되고, 그에 따라 ‘아픔’ ‘고통’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다. 감정의 표출 과정에서는 신체적 반응과 더불어 사유가 작동하고, 그러한 사유는 ‘느낌’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신체 속에 기호화되고 경험으로 누적된다. 물리적 접촉에 의한 신체적 자극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감각되고 경험화 되기 때문에 깊고 오래 ‘몸-마음’에 각인된다. 필자가 기술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감정 발생 메커니즘의 한 국면에 불과하다. 피부감각에 직접 지각된 사례가 아닌 추상적인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감정이 발생되고, 감정은 사유를 자극하고 사유는 감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슬픔과 같은 감정의 탐구에 인지생물학적 방법론이 새로운 경험과학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학적 성과만으로 우리의 복합적인 감정을 해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는 과학적 성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설명 방식을 요청한다. 체험주의에 입각한 인지언어학이나 언어철학적인 이론은 감정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체험주의 철학은 의미의 이해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의 신체적 근거와 경험을 중시한다. 노양진은 “의미 탐구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론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해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를 따라 의사소통의 문제를 신체적, 물리적 조건의 공동성이라는 측면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sup>20)</sup>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입장

은 슬픔과 같은 감정과 정서적 태도를 연구하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인간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주의 방법론은 감정의 이해를 도모하는 감성연구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언어와 대상과의 대응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의미이론의 관점에서 슬픔의 의미를 탐구한다면, 슬픔이라는 단어에는 ‘슬픔’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세계’가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즉 슬픔의 의미는 슬픔이 지칭하는 대상과 결부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나 슬픔에 대응하는 추상적 실체가 있다고 간주하는 이러한 가정은 근본적으로 공허하다. 언어는 우리와 독립적인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삶의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여 파악되어야 한다.<sup>21)</sup> 이러한 관점에 따라 슬픔의 의미를 이해할 경우, 우리는 슬픔에 대응하는 추상적 실체를 찾기보다는 슬픔이 근거하는 구체적인 경험과 복합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픔이라는 감정 현상이 기대고 있는 ‘공공성의 지반’, 곧 ‘신체화된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달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sup>22)</sup>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감정을 이해할 때, 현대 영미철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참조할만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에 근거한 언어게임의 화용론적 입장을 제기하였고, 로터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 확장의 변이를 ‘우연성’ 개념으로 포착한다. 감정을 비롯한 의미의 이해 방식에서 설(J. Searle)은 진일보된 논점을 제공한다. 그는 ‘의미의 선택에 문장 의미 이외의 주요한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sup>23)</sup>는 관점에서 지향성(intentionality), 네트워크(network), 배경(background)이란 개념을 통해서

20) 노양진 지음, 『몸, 언어, 철학』, 서광사, 2009. 40쪽.

21) 노양진 지음, 『몸, 언어, 철학』, 서광사, 2009. 21쪽.

22) 노양진 지음, 『몸, 언어, 철학』, 서광사, 2009. 40쪽.

23) 노양진 지음, 『몸, 언어, 철학』, 서광사, 2009. 68쪽.

하나의 지향적 상태는 네트워크와 배경의 복합적인 관련성 속에서 구성된다는 이론을 전개한다.<sup>24)</sup> 설의 이론에 따르면, ‘믿음, 희망, 공포, 욕구’와 같은 감정은 세계 안에 지향하는 대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향성을 갖는다. 설이 지향성을 ‘마음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과 네트워크와 배경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작동되는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감정이 분산적이면서 통합적인 네트워크적 연결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점과 의미 선택의 새로운 지반 모색은 감정의 형성과 의미, 감정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유효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현대 영미철학자들이 경험적 세계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언어와 대상, 그리고 의미의 형성 구조에 대한 논의는 비록 감정 연구와는 다른 위상을 갖지만, 그들이 제기했던 개념이나 방법론은 소통을 위한 감정 이해의 단서로 활용 가능하다.

#### 4. 슬픔의 두 층위 - 상실과 좌절

슬픔은 죽음과 이별에 직면하여 느끼게 되는 외로움, 고통스러움, 안타까움, 후회, 실망, 허망, 절망 등의 상실과 좌절을 수반하는 감정이다. 인지언어학의 연구에 따르면, 슬픔의 감정은 대체로 신체와 관련된 말로 표현되고, 그러한 일상언어는 개념적 은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임지룡은 슬픔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체 외부/내부의 반응을 고찰하고 있는데, 특히 신체 내부적 증상은 주로 가슴·간장 창자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의 은유적 양상을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폭풍우’ ‘실’ ‘천’ ‘질병’ ‘우는 아기’ 등 11가지로 구분한다.<sup>25)</sup> 줄탄 쇠백세스는 슬픔에 대한 은유를 예시하면서, ‘슬픔은 아래다’ ‘슬픔은 얼 부족이다’ ‘슬픔은 그릇 속의 액체다’ ‘슬픔은 포획된 동물이다’ 등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sup>26)</sup> 이러한 사

24) 노양진 지음, 『몸, 언어, 철학』, 서광사, 2009. 74쪽.

25) 임지룡 지음,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210쪽.

레는 슬픔의 신체성과 은유적 특성을 보여준다. 레이코프와 존슨의 경우에는 영상도식과 은유, 환유, 원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이론에서 자아에 대한 ‘주체-자아’ 은유<sup>27)</sup>와 ‘사건과 원인’에 대한 ‘행위-위치’ 은유<sup>28)</sup>를 주목한다. 자아에 대한 ‘주체-자아’ 은유의 방식은 일종의 ‘소유물’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건과 원인에 대한 ‘행위-위치’ 은유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목적지가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위치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함에도 그것이 어긋날 때 일어나는 ‘절망’의 좌절감을 보여준다.

필자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수반하는 슬픔을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안하고 있는 은유를 참조하여 두 축으로 나누고, 그 하위 범주에 죽음, 이별, 외로움, 고통스러움, 안타까움, 후회, 실망, 허망, 절망 등의 감정을 배치하고자 한다. 여기서 슬픔을 상실과 좌절로 나눈 것은, 상실은 하락의 방향성을 갖으면서 ‘소유물’을 잃은 주체의 심정을 보여주며, 이것은 일종의 ‘잃어버린 보물’<sup>29)</sup>과 같은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좌절의 경우에는 일종의 ‘시간 여행’ 은유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행위자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장벽을 만난 상태, 곧 인과적 원인과 결과라는 구조를 갖는 감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필자가 슬픔을 상실과 좌절로 분류한 것은 감정이 포개 넣기<sup>30)</sup>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밀한 구분이 될 수는 없다. 슬픔의 감정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감정 상태는 서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슬픔의 개인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를 고려한 것이다. 상실

26) 졸탄 페벡세스 지음, 김동환·최영호 옮김, 『은유와 감정』, 동문선, 2009. 58-60쪽.

27)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253-345쪽.

28)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391-426쪽.

29) 이향준 지음, 『켄타우로스를 상상한 유학자들』, 예문서원, 2012.

30) 안토니오 다마지오 지음,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49-50쪽.

과 좌절이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상실감은 주로 ‘보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개인적 층위의 감정 상태로 분류된다면, 좌절은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관계적 상황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층위 감정 상태로 구분하였다.

상실에서 비롯하는 슬픔의 감정은 일종의 ‘소유물’ 혹은 ‘보물’의 상실, 잃어버림에서 오는 경우이다. 이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별’과 ‘죽음’이다. 이별과 죽음은 모두 ‘헤어짐’ ‘함께하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별보다 죽음이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이다. 신체성을 갖는 유한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것이 죽음이지만, 죽음은 언제나 참담하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이 아닌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죽음 경험’은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린 듯한, 마치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듯한’ 감정 상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상실감을 수반하는 슬픔은 깊고 오래 증폭될 수밖에 없다.

좌절에서 비롯하는 슬픔의 감정은 인과적 성격을 갖는다. 좌절감은 기본적으로 ‘대상 사건-구조’의 은유를 갖는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목적지까지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수행할 수 없음에서 오는 비극성을 안고 있다.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타자를 비롯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힘-권력-자본의 관계가 작동한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형태는 ‘항상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곧 ‘행복’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삶-의-형태를 정치적 삶으로 구성”한다.<sup>31)</sup>

골프계 시대도 아님에도 우리시대의 특정 집단에서는 아직도 성골과 진골을 따지고 육두품을 구별한다. 포함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 작동하는 감추어진 배제의 구조는 우리의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형성한다.

31)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14쪽.

아감벤의 표현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배제되는 구도이다. 이 구도에서 ‘벌거벗은 생명’은 배제를 통해서만 어떤 것에 포함되는 상황이다.<sup>32)</sup>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배제를 통한 포괄적 구조’는 깊은 슬픔의 원인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방적 가르기이다. 삶은 가르기와 접합의 상호적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가르기를 통해서 배제되고, 배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 머물게 한다. 그러한 선택은 강요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적지인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인해 절망감은 증폭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주의, 학연주의, 불건전한 과당성, 뜻 모를 경멸, 조소, 야유, 시기와 질투, 모략은 일방적 가르기와 배제를 강요하고, 그것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와 같은 깊은 슬픔을 유발하는 배제와 가르기는 잔인한 폭력이다.

그렇지만 상실과 좌절을 수반하는 슬픔의 감정과 정서적 태도는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 상실의 슬픔 감정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심연으로 가라앉게 하지만, 하락의 방향성은 또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 슬픔의 하향성에는 바닥을 치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 ‘힘과 역량’이 내장되어 있다. 좌절의 절망감은 ‘가로막힌 장애’로 인한 슬픔이다. 이 장애는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부당한 장애’는 제거되어야 하고 목적지를 향해 다시 나가야 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G.마르셀이 말하는 것처럼, 절망을 통해서 인간은 ‘희망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 5. 슬픔의 도덕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은 주로 감정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기원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감정 연구는 ‘도덕과 감정의 문제(Morality and Emotions)’를 다루면서 도덕의 발생과 유지에 감정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감정과 도덕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은 단순히 오늘날의 관심 영역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인성이나 동기 부여, 의지의 문

32)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225쪽.

제와 연계되면서 고대에서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다.

유가철학적 사유에서는 인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주로 논의된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이 생물학적 본능으로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 조절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발성을 긍정하는 인간관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감정적이므로 규제하고 억제되어야 할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것은 부정적 인간관이기보다는 자발성의 결핍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두 관점은 자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전자는 맹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순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니비슨의 경우, 그는 자발성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자발성에 의한 행위, 곧 도덕적 자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아크라시아(akrasia)로 개념화 하고 있다.<sup>33)</sup> 그렇다면 아크라시아를 방지하고 도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감정과 어떤 관련성을 갖을까? 이러한 물음은 ‘인간은 감정을 어떻게 도덕화 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

감정의 도덕화 문제는 맹자에게서 발견된다. 맹자는 슬픔과 연민의 감정을 ‘감정이입’과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도덕적 슬픔’으로 전화시켜 감정의 도덕화, 곧 ‘슬픔의 도덕화’를 기획한다.<sup>34)</sup> 맹자와 제선왕의 대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선왕은 소가 애처롭게 끌려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희생으로 쓰이게 될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한다.<sup>35)</sup> 제선왕이 ‘애처롭게 끌려가는 소’라는 대상에 대해서 느낀 ‘슬픔’ 혹은 ‘애처로움’의 감정은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인 생물학적 본

33) 데이비드 S. 니비슨 지음, 김민철 옮김, 『유학의 갈림길』, 철학과현실사, 2006. 192-201쪽.

34) ‘슬픔의 도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의 문제, 도덕적 상상력을 통한 도덕적 슬픔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유가철학에서 통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 특히 맹자가 제안하고 있는 사단과 인간의 도덕적 본질로 상징하고 있는 인의예지와 같은 덕성은 경험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35) 『맹자』, 『양혜왕장』 상7.

능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정당화의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제선왕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즉 ‘소를 양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소가 애처롭게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함’을 정당화한다.<sup>36)</sup>

맹자는 제선왕의 ‘행위’를 ‘생물학적 본능’에 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맹자가 슬픔의 감정을 도덕화 하는 기획이 자리한다. 맹자는 ‘소가 애처롭게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함’ 때문에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도덕의 단서를 제기한다. 죽음이라는 고통의 상황에 직면한 소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의 기원을 맹자는 ‘도덕성’에서 찾고자 한다. 그래서 그 도덕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를 양’으로 바꾸었다고 파악한다. 맹자는 윤리적인 행위를 하 게끔 유도하는 ‘도덕’이 있고, 그러한 도덕에는 ‘원칙’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도덕의 원칙’을 맹자는 ‘도덕성’으로 정초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유적인 특성 곧 ‘도덕성’이란 것이 ‘마음의 짙[端]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맹자는 이와 같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의 ‘마음’이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이 도덕성의 발로이고, 그러한 의식의 흐름은 곧 도덕성이 본유한 것임을 드러낸다고 본다.

맹자와 제선왕의 대화는 슬픔의 감정을 도덕성으로 전화하려는 맹자적 기획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도덕적 슬픔’을 통해 감정의 도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슬픔의 도덕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적으로 ‘도덕적 슬픔’을 상상하고 느껴야 한다. 맹자는 제선왕의 정서적 판단과 행위를 감정이입에 근거하여 ‘슬픔의 전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점은 비록 그가 감정을 도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중요한 발견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6) 제선왕이 ‘애처로움’을 느꼈다면 소든 말이란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이는 소의 애처로움을 구체할 목적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여 ‘양’의 희생은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선왕은 자신의 목적을 통해 행위를 정당화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맹자와 제선왕의 논의는 대단히 압축적이다. 압축을 이완시켜 그 과정을 ‘신체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몸철학과 인지생물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해보자. 제선왕이 ‘끌려가는 대상으로서의 소’를 지각했다.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본 시각 신호는 급속히 뇌로 전달되고, 뇌의 특정부위를 자극한다. 그러한 자극은 지극히 찰나적인 순간에 인지적 판단 작용을 수반하며, 그것은 하나의 심적 사건, 곧 마음의 움직임과 연동되고, 그러한 정서적 반응은 신체화되어 ‘애처로운 감정’으로 표출된다. 감정으로 표출되기 이전의 특정 시점에 상상력도 함께 작동한다. 제선왕은 ‘끌려가는 소’를 본 것이지만, 그의 뇌에서는 ‘끌려가는 소’의 다음 상태를 상상한다. 상상의 지점에는 경험적으로 지각했던 누적된 사건들의 다발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떠올려진 ‘소’는 ‘죽음을 맞는 소’의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도덕적 상상력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슬픔’의 이미지이다.<sup>37)</sup> 그러나 그 이미지는 실제적 기억의 패턴과는 다른, 현재적 대상의 죽음이라는 허구가 결합된 상상력이다. 거기에는 제선왕이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도덕적 슬픔’이 상상된 것이다. 이유 없이 단지 제물로 쓰이기 위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소’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자극은 제선왕에게 ‘도덕적 슬픔’을 불러 온다. 소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심은 제선왕으로 하여금 ‘소를 양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게 한다. 제선왕이 끌려가는 소를 보았을 때, 가엾게 여기는 상상된 ‘도덕적 슬픔’은 ‘감정(마음)’을 유발하는 복합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맹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감정 발현의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맹자가 그러한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사실 없다. 그러나 ‘소를 양으로 바꾼 행위’에 대한 맹자적 사유를 ‘마음속의 몸’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배제할

37)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도덕적 추론’에 해당한다. M. 존슨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은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신체화된 구조’들에 근거한 ‘상상적 것’이라고 보며, 이 과정이 ‘도덕적 상상력’이다. M. 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도덕적 상상력』, 서광사, 2008. 27-30쪽.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신체화된 감정’의 층위에서 ‘소를 양으로 바꾸는 판단’의 가능성은 이미 ‘신체화된 마음’의 ‘씩’이 있기에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신체화된 마음의 싹’이라고 하는 은유는 외부적 자극에 대한 뇌의 특정한 반응 양식이 측근하게 여기는 감정으로 표출된 이후에 다시 신체적 반응과 연계되고, 이것은 인지적 판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서적 상태로 남게 되는 일종의 ‘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맹자는 이것을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애처로운 마음(不忍人之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적 상태’는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호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방식은 맹자가 제안한 것과 같은 선협적 ‘도덕성’을 정초하지 않고도 감정과 감정이입에 의한 정서적 대응 방식을 통해 도덕의 구성 가능성과 그에 따른 도덕적 실천의 구체화 과정을 설명 가능하게 해준다.

맹자가 자연적 감정인 슬픔에 대한 도덕적 기획을 통해 도덕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도덕적 실천’의 가능성을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내부적 자질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논점선회의 오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슬픔의 감정이입,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타자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슬픔’을 상상하고, 슬픔의 감정을 도덕화하려는 기획은 폭력성이나 잔인함을 제한하려는 감성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슬픔의 도덕화와 관련한 맹자의 견해는 ‘유자입정’이라는 사례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맹자의 이러한 입장을 ‘상황에서 피어난 정감들을 적절한 방식으로써 다른 상황에도 확장하여 적용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매우 평범한 노하우’에 기반을 둔 ‘윤리적 훈련(ethical training)’의 일종으로 파악한다.<sup>38)</sup>

38)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지음, 유권중·박충식 옮김, 『윤리적 노하우』, 갈무리, 2009. 55-56쪽.

## 6. 마치며 - 슬픔의 파도타기

지금까지 필자는 슬픔이 갖는 범주적 특성을 ‘하향성’, ‘액체성’, ‘차가움’, ‘어두움’으로 계열화하여 이해하고, 슬픔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하위 범주들은 ‘상실’과 ‘좌절’의 두 층위를 통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슬픔의 감정을 감정이입과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도덕화하려는 맹자적 기획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슬픔은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슬픔의 상징화’를 통한 ‘슬픔의 파도타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슬픔이라는 단일하지 않은 감정적 상태를 인간이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이 아닌 ‘넘어서기’ 위한 길은 쉽지 않다. 여기서 극복이란 개념 대신 ‘넘어서다’라는 동사적 표현을 쓴 이유는 ‘슬픔의 실체’가 매우 복잡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단일한 기표’ 혹은 ‘사태’로서의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기표에 포함된 다양한 ‘기표’의 복합적 층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단일한 사태는 그 사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극복’ 가능하지만, ‘슬픔’은 ‘가시적 대상’이 아니라 ‘복합적 감정의 결합’이기 때문에 마치 ‘파도타기’와 같은 운동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필자가 ‘슬픔의 파도타기’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파도와 같은 움직임을 갖는다는 개념적 은유이다. ‘슬픔’은 외부적인 동력에 의해 ‘파도’와 같이 울렁이게 된다.

슬픔의 파도타기는 ‘그릇 속의 액체’라는 은유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그릇 속에 담긴 물을 흔들면, 그릇이 움직이고 동시에 물도 움직인다. 물의 표면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상태를 보다 큰 그릇에 옮겨놓으면, 다른 형태가 잡힌다. 파도는 저점과 고점을 갖는다. 파도는 그냥 출렁이는 것만이 아니라 높고 낮음의 상태가 있다. 낮은 상태에서 다시 높은 상태로 이동한다. 슬픔은 이와 같이 낮은 저점의 상태에서 다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저점과 고점의 교차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요한 상태를 만들게 된다. 고요한 상태는 일종의 힘의 균형의 상태이다. 우리가 신체적 평형을 경험한 것처럼 슬픔의 파도타기는 ‘감정적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다.<sup>39)</sup>

슬픔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상실과 좌절의 감정으로 인하여 나락에 빠진 듯하고, 그와 더불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감정이 솟구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구적이지 않다. 인간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스피노자는 수동적인 슬픔의 감정이 항구적이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다. 수동적 감정인 슬픔은 코나투스(Conatus)의 자발성에 의해 마치 잃었던 항상성(homeostasis)을 회복하는 과정처럼 새로운 단계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 단계, 곧 슬픔의 파도타기는 슬픔을 넘어서는 단계이다. 그 단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구성된 신체적 정서적 평형상태이다. 이러한 감정적 균형을 유도하는 과정을 필자는 ‘슬픔의 파도타기’라 지칭하는 것이다.

‘슬픔의 파도타기’는 ‘슬픔의 상징화’라는 의지적 과정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 죽음과 같은 참담한 슬픔에 직면하여 인간은 두 가지 실존적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파괴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태를 넘어서거나 한다. 감정의 생물학적 본능은 참담한 슬픔의 상황을 넘어서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쨌든 슬픔을 넘어서려는 의지적 노력으로 나타는 것이 ‘슬픔의 상징화’ 과정이다. 슬픔의 상징화는 의례의 과정이나 서사를 통한 문학작품, 그림이나 공예와 같은 예술작품, 혹은 음악작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서 의례의 과정은 문학이나 예술 영역과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의례의 경우, 죽음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상례와 죽은 자를 일상적으로 수용하는 제례와 같은 형식에서 나타난다.

39) M. 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마음 속의 몸·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근거』, 철학과현실사, 2000. 198쪽.

여기에는 복식적인 측면과 회화적인 장식이 사용되고, 음악과 춤이 또한 부가된다. 그리고 ‘애책문’이나 ‘애사’, ‘추도문’, ‘제사’, ‘만사’ 등도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죽음을 기억하는 한 방식이다. 서사적인 문학작품의 경우, 슬픔의 상징화하는 자연스런 슬픔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비탄에 젖어 노래한 <공무도하가>나,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제망매가>, <부용산>도 그러한 사례이다. 특히 율명사의 <제망매가><sup>40)</sup>와 박기동의 <부용산><sup>41)</sup>은 ‘다른 죽음 같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의 시간적 거리는 삼국시대와 현대이지만, ‘죽은 누이’라는 대상에 대한 슬픔은 너무도 유사하고 투명하다. 경험적으로 닮아 있는 두 죽음에 대한 비가는 차마 가여운 누이에 대한 조사이다. 이와 같은 서사적 형상화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슬픔에 대한 상징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슬픔의 주체는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랑하는 타자’를 떠나보내고도 ‘바라보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상징화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월이 가도 덜어낼 수 없는 ‘원(怨)’과 ‘한(恨)’으로 남게 된다. 슬픔의 왜곡된 극단적 비극성은 ‘원’ ‘한’과 같은 상황에서 항구화된다.

이렇듯 슬픔의 상징화는 ‘격동하는 파도’와 같은 ‘슬픔의 상태’를 ‘고요한 파도’로 만드는 일련의 의식적 행위이다. 그러한 상징화는 일종의 ‘거리두기’이다. 거리두기는 슬픔을 타자화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슬픔의 타자화는 ‘주체와 대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 사이에 거리두기를 시도함으로써 슬픔의 주체는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슬픔은 ‘사물화의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40) <제망매가> “生死 길은/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41) <부용산> “부용산 오리 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럴 경우, 사물과 같이 고착된 슬픔은 심화되고, 슬픔의 주체를 왜곡시킨다. 그러한 왜곡된 슬픔의 감정은 슬픔의 주체로 하여금 나르시스의 죽음처럼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게 만든다. 자기에게 갇힌 슬픔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파괴적이고 잔혹해진다. 맹자가 슬픔의 도덕화를 통해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인간의 감정적 왜곡이 초래할 폭력적이고 잔혹한 사태의 비극성을 윤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슬픔의 감정’을 ‘파도타기’한다는 것은 외다리로 위태롭게 걷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로 제대로 걷기위한 시도이다. 그것은 왜곡된 ‘외다리의 감정 상태’<sup>42)</sup>를 온전히 양발의 균형 잡힌 감정 상태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균형 잡힌 슬픔은 타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타자로서의 자신과도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량이자 치유적 힘이다.

(전남대학교)

42) 이정원 지음, 『의식과 자유』, 동녘, 2001. 125-130쪽. 이정원은 다마지오의 ‘감정 기제가 손상된 상태’를 ‘외다리 보행’으로 설명한다.

## 참고문헌

- 『논어』  
『맹자』  
『세설신어』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08.  
이정원, 『의식과 자유』, 동녘, 2001.  
이향준, 『켄타우로스를 상상한 유학자들』, 예문서원, 2012.  
임지룡,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G. 레이코프·M. 존슨,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질베르 뒤랑, 진형준 옮김,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문학동네, 2010.  
M. 존슨, 노양진 옮김, 『마음 속의 몸-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근거』, 철학과현실사, 2000.  
M. 존슨, 노양진 옮김, 『도덕적 상상력』, 서광사, 2008.  
노양진, 『몸, 언어, 철학』, 서광사, 2009.  
데비드 S. 니비슨, 김민철 옮김, 『유학의 갈림길』, 철학과 현실사, 2006.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오규원, 『가슴이 붉은 딱새』, 문학동네, 1996.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줄탄 퀴베세스, 김동환·최영호 옮김, 『은유와 감정』, 동문선, 2009.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유권중·박충식 옮김, 『윤리적 노후』, 갈무리, 2009.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외, 남진희 옮김, 『상상동물 이야기』, 까치, 1994.  
Michael Lewis(ed), Handbook of Emotion-thir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8.  
김경호, 『유학적 감성세계와 공감』, 『감성연구』1호, 전남대학교남학연구원, 2010.  
박정순, 『감정의 윤리학적 사활』,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이성원, 『고대 중국의 악의 기원과 그 변화』, 『동양사학연구』 94, 2006.  
정대현, 『슬픔: 또 하나의 실존 범주』, 『철학』100집, 한국철학회, 2009.

**Where is sadness come from?**

**- focused on 'embodied mind' and the origin of sadness**

김경호 e-mail: manas96@naver.com

Kim Kyungho

투 고 일	2012년 05월 10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8일
계재확정	2012년 05월 21일

This paper tries to know the mechanism of sadness and a way of understanding sadness, and to explore how sadness is changed into affirmative power through conceptualization of sadness. Above all, this writing, based on experientialism perspective which sees 'embodied mind' as its core, suggested by Lakoff and Johnson, explores sadness which is an aspect of 'embodied mind'.

And this study views 'mechanism of emotional manifestation' to explore how sadness is manifested based on the basic argument of cognitive biology of A. Damasio. Furthermore,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e fields of Philosophy of Language and Cognitive Linguistic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ay in which conceptualizing sadness is made.

Through exploration for emotion of sadness based on human body, two layers of sadness are reviewed. This study also looks into trial where emotion of sadness is moralized from the point of 'moral sadness', 'moralizing sadness', and 'moral imagination' by Mencius.

Finally, instead of conclusion, 'process of symbolizing sadness' is proceeded with discussion of 'rolling on the waves with sadness'. I have this point of view that abstract emotion of 'sadness' is originated from 'embodied mind' and sadness is reproduced - amplified or reduced - but does not continue forever, in the end, will disappear.

Key words: Sadness, Embodied sadness, Moralizing Sadness, Symbolizing sadness, Rolling on the waves with Sadness,